

보도자료

2011년 10월 24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와이브로활성화팀 김경만 팀장(☎750-1880)
와이브로활성화팀 조병현 사무관(☎750-1883) 224e6970@kcc.go.kr

방통위,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추진

-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요금감면 시행
-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월 24일(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2012년 1/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 연간 77만 가구에 대하여 215억 원(가구당 27,922원) 요금감면 추정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 연간 5만5천 명에 대하여 57억 원(1인당 103,636원) 요금감면 추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 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 508만 명에 대하여 5,640억 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였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가 시행(예정 : '11.12월)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없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붙임 :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및 인터넷전화 관련 통계현황 등. 끝.

< 참고1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 요금감면 대상 및 기준

구 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공로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11년 최저생계비 : 1,439,413원(4인가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가입비 면제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 가능액 21,500원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기본사용료 30% 감면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 서비스별 요금감면 제도 도입시기 : 시내·시외전화, 번호안내, 이동전화, 무선호출 ('00.1월), 초고속 인터넷('07.1월)

※ 이동전화 서비스 통화료 :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를 합한 금액

※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 감면 : 이동전화에 대해 월 총 사용액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 대상 : 자활사업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으로 양육비와 학비 수급자

< 참고2 >

인터넷전화 관련 통계 현황

□ 연도별 인터넷전화 가입자 현황

구 분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9월말
가입자(누적)	33만	61만	248만	666만	914만	1,044만

□ 인터넷전화 사업자별 현황('11.9월말 기준)

번호	사업자	가입자(명)	점유율(%)
1	KT	3,156,420	30.2
2	LGU+	3,122,577	29.9
3	SK브로드밴드	1,705,578	16.3
4	KCT	1,189,162	11.4
5	삼성SDS	709,801	6.8
6	CJ헬로비전	215,414	2.1
7	SK텔링크	214,690	2.1
8	몬티스타텔레콤	76,793	0.7
9	온세텔레콤	30,750	0.3
10	드림라인	14,650	0.2
11	SB인터랙티브	4,238	0.1
합계		10,440,073	100%

□ 연도별 인터넷전화 시장 규모

구 분	'08년	'09년	'10년
시장 규모	2,542억원	5,909억원	8,370억원

□ 연도별 인터넷전화 가구 대비 점유율 현황

구 분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 9월
총 가구수	16,158,334	16,417,423 (+259,089)	16,673,162 (+255,739)	16,916,966 (+243,804)	17,152,277 (+235,311)	17,379,667 (+227,390)
VoIP가입자	328,630	614,421 (+285,791)	2,475,455 (+1,861,034)	6,660,207 (+4,184,752)	9,142,328 (+2,482,121)	10,440,073 (+1,297,745)
가구대비 VoIP 점유율	2.0%	3.7%	14.8%	39.4%	53.3%	60.1%